

Inside ACA

2023년 9 - 10월

acaddc.org



ACA 문화의 날 행사에 정통 보장을 입은 사사(4학년, 중국)와 유진(6학년, 네팔).

Vision

우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이주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Mission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이주 아동들이 교육권리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 동안 평안 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로 저희는 9월 4일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나, 지금은 학생들도 새 학기에 적응을 했으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교사들이 모여 새 학기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반가운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학교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니다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모히브(Mohib) 학생이, 가족과 함께 학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저희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이지만, 저희 학교에 다시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4년동안 모히브를 가르쳤는데, 부모님이 말을 하기를 그 때의 학교 생활을 모히브가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10월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푸르고 맑은 가을하늘 아래 활동을 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야외에서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재미있는 문화적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해도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눈길을 끌게 됩니다. 저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소식지를 보낼 땐 추운 겨울일 것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과 10월에 있었던 사역 내용들을 보내 드립니다. 기도 부탁 드리며 늘 많은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영철, 김혜경 선교사 드림



**이주민 배경 학생들의 입학 -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삶 속
으로...**



두 명의 파키스탄 학생들의 입학 소식도 반가웠지만 네팔에서 온 두 가정의 자녀들(1학년, 6학년, 8학년)의 입학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약 8년전 네팔에서 온 학생 한 명이 1년동안 학교를 다닌 적 이후, 올 9월에 3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입학하였습니다. 아버지들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 자녀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여 저희 학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배워가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든 부분이 있으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늘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욱 친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체험 여행
전라남도로, 3박 4일**

국 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의 후원으로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 총 38명과 교사 4명이 전라남도 역사와 문화 체험 여행을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곡성, 순천, 여수를 방문하여 다양하고 깊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담양 죽녹원, 곡성기차마을,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낙안읍성, 순천 옷장, 여수

밤바다 크루즈, 여수광양항만공사, 손양원목사 순교기념관과 같은 다양한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3박 4일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학생들은 더욱 친해졌고, 고등학생들이 동생들을 많이 챙기며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두천에서 담양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5시간 30분만에 도착하여 지쳐 있었지만, 담양 죽녹원(대나무숲



공원)을 산책 하면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시원한 바람이 불며 대나무 향기를 더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한 모든 관광지가 재미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던 곳은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이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문구가 기념관 입구 위쪽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았고, 1950년 두 아들 처럼 순교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전한 9가지 감사 기도문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3박 4일의 전라남도 여행은, 즐겁고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신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스프릿 위크 (Spirit Week)

저희 학교는 학생 임원단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한주동안 다양한 의복을 입고서 학교에 등교하는 School Spirit Week을 가졌습니다. 제일 재미있던 날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의 정통 의상을 입고 온 날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 모두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고 수업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한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며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친구들의 정통 복장이 다 멋있어요!” 라고 하며 함께 사진을 찍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주며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 문화체험 축제

저희 학교 초등학생들은 1주일에 두 번 태권도 수업을 받습니다. 태권도 사범님께서 저희 학교로 오셔서 8년동안 태권도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 초등학생들이 강남구에서 열린 2023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축제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에 약 40개국의 이주민/외국인 800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다문화선교 30년 “죽도록 충성하라”



학생들과 전라남도 여행중에 전남동부극동방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사랑과 용서의 성이라고 불리는 손양원목사 순교기념관을 방문하여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손동길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 학생들을 안내 해주시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교회에서 나병환자들을 돌보며 목회를 하셨고 6.25전쟁이 일어났지만 나병환자들을 돌보시느나 피난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셨고 49세의 나이에 순교 하셨습니다.

손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순교기념관 입구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현판이 박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기념관에 들어 걸 수가 없게 건물에 박혀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버그 성결교회에서 30년 전 파송을 받을 때, 전 교인 앞에서 드린 약속이 “죽도록 충성 하겠습니다”(요한계시록 2:10)였습니다. 저는 30년전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교기념관의 방문을 통해 어떤 마음자세를 끊임없이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선교 30년: 1990년 여름



1990년에 동두천에서 만났던 학생들... 미군부대 근처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빌려 영어 캠프와 여름성경 학교 진행을 하였습니다.

1990년 여름, 삼버그 성결교회는 (전 시카고 성결교회) 고등부부터 대학부/청년부까지 여름단기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교회멤버들이 여러 나라로 떠났습니다. 박성철 (현재 페루 선교사) 청년부 멤버와 저도 여름단기선교 사역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단기선교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기지촌이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도시를 정하지 않고 1990년 5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1990년 여름 - 1차 단기선교; 1991년 여름 - 2차 단기선교; 1992년 여름 - 3차 단기선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첫

한달은 기지촌을 다니며 조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달은 한 지역을 정해 그 지역에서 학생들을 모아 영어 캠프와 영어 공부방,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한달 동안 여러 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조사한 끝에 동두천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때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학생들은 미군들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



▲ 1990년 8월, 동두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으며, 어머니들이 홀로 양육하고 있던 결손가정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한 명씩 찾아 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여름 단기선교가 오늘 ACA라는 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문화선교 30년을 뒤돌아 보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제목

1. 여러 이유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학교의 따뜻한 환경, 그리고 교사들의 기도사역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며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도록...
2. 서울, 의정부, 그리고 파주에서 전철과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3.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늘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4. 교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사 방과 후에도 학생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과 기도생활을 꾸준히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도록...
5. 이번 학기에 새롭게 등록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10월부터 ACA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북민 학생이 영어 수업에 잘 적응하며 인내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6. 앞으로 진행 될 학교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기쁨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며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7. 오전과 오후에 학생들에게 라이드를 주는 교사들이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세요.

후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merasian@mac.com
jameskangmccann@gmail.com